

빛 품은 성에서 정조를 보다

문화

CULTURE

2016년 수원 화성 방문의 해...국방저널 e북서 자세히 소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城)과 성곽(城郭)은 가장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주는 '국방요새'로 존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은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문화가 숨 쉬고 예술이 살아있는 공간이다. 국방저널은 연중기획으로 우리나라의 성과 성곽을 돌아보며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역사의 발자취를 카메라 렌즈에 담고 있다. 그 첫 회로 수원 화성을 탐방한 국방저널 3월 호 특집 화보를 소개한다. 올해는 축성 220주년을 맞아 지정한 '수원 화성 방문의 해'이기도 하다. 더욱 다채로운 수원 화성의 아름다움은 국방저널 e-북에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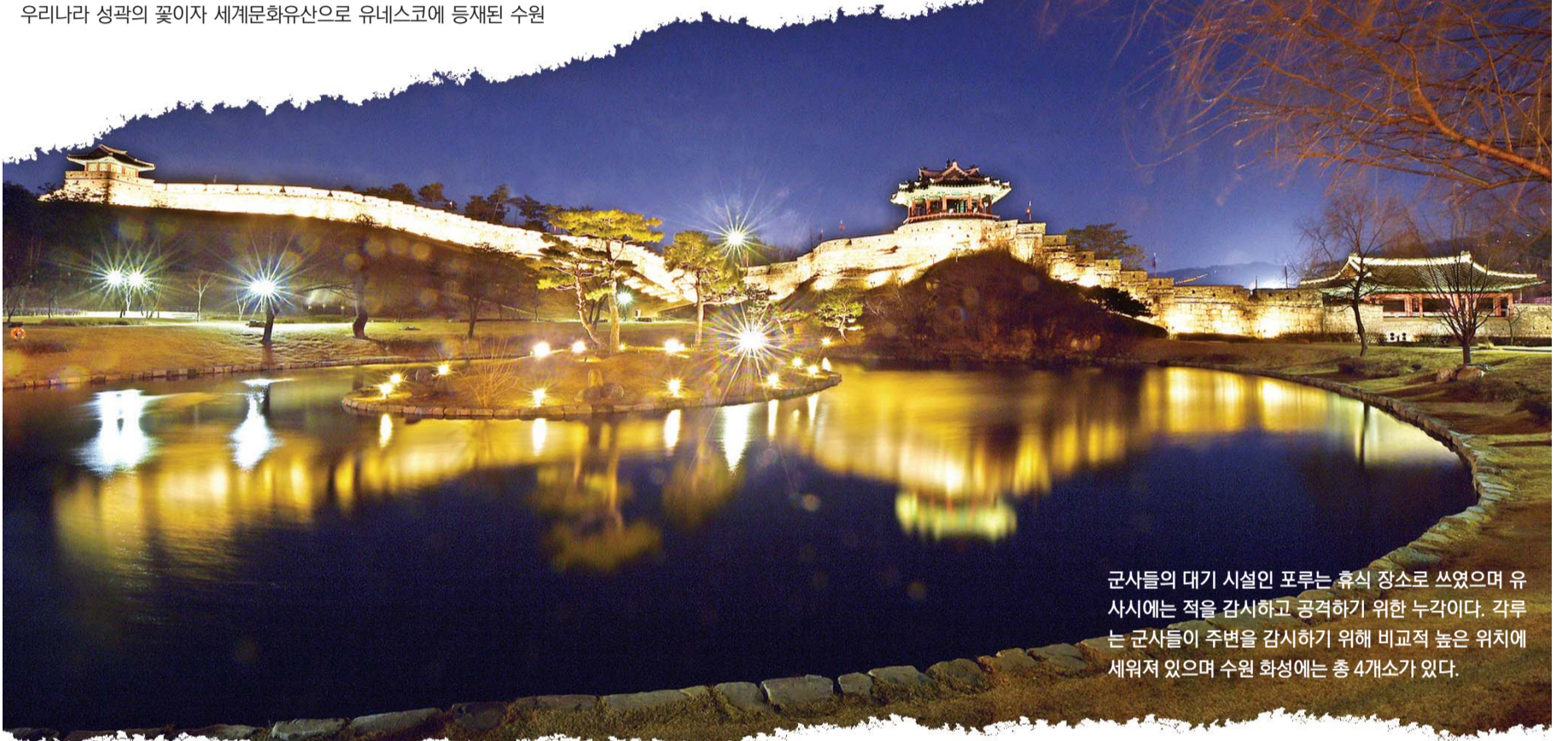
우리나라 성곽의 꽃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수원

화성은 정조 18년(1794)에 축성을 시작해 2년 뒤인 1796년에 완공됐다. 비통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생각하는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기본이 됐다. 또한 화성에는 강력한 왕도정치 실현을 위한 정조의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겨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이성은 둘레가 5744m, 면적은 18만8040㎡에 이른다.

정조가 꿈꿨던 환상의 도시 수원 화성은 다산 정약용이 설계했으며 당시의 신기재인 거중기와 활차 등을 활용해 축성됐다.

특히 화살과 창검을 방어하는 기본적인 구조 외에 총포도 막을 수 있는 근대적인 성곽 구조를 갖춘 혁신적인 형태의 성으로 알려져 있다.

글=조진섭/사진=이경원 기자



군사들의 대기 시설인 포루는 휴식 장소로 쓰였으며 유사시에는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기 위한 누각이다. 각루는 군사들이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위치에 세워져 있으며 수원 화성에는 총 4개소가 있다.



화서문
성의 서쪽문인 화서문으로 팔달문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문의 전면에 한쪽이 열려 있는 반달 모양의 웅성을 쌓았다. 오른쪽 멀리 성곽 주변을 감시하는 서북각루가 보인다.



팔달문
수원 화성을 출입하는 4개의 관문 중 하나인 팔달문은 남쪽의 성문이며 돌로 쌓은 무지개문 위에 목조 문루가 세워져 있다. 특히 벽돌로 쌓은 반원형의 웅성이 문을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다.



장안문
성의 북쪽에 위치한 장안문은 화성의 정문으로서 팔달문과 함께 화성의 대표적 건축물이며 형태는 팔달문과 거의 비슷하다. 서울의 승례문보다 더 큰 웅장한 모습을 자랑한다. 장안문으로 들어가기 전 웅성의 문 천장에 그려진 용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동장대(연무대)
넓게 트인 공지에 세워진 동장대는 군사들이 무예를 수련하는 공간으로 연무대라고도 불렸다. 단층의 팔작지붕 형태 건물이지만 3층으로 높은 대를 쌓고 그 위에 세워 화성의 건물 중 최고의 위용을 자랑한다.

■ 편집=정고운 기자